존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권위·자증하는 빛·능력에 관하여』(1659, 굴드판 전집 16권 1862, 영문)

오웬 · 4장 성경 안에 있는 신적 기원의 증거 · 자증하는 빛과 능력

존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권위·자증하는 빛·능력에 관하여』(1659), 4장. 굴드판 전집 16권(1862). 321쪽 앞뒤이며, 정확한 쪽 범위는 확인이 필요하다.

🧭 흐름 한눈에

앞 장에서 오웬은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 직접 하는 증언들을 모았다. 4장에서는 성경 안에 본래 갖추어진 '내적 논거'로 넘어간다. 그는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세상에 두 가지뿐이라고 말한다. 빛과 능력이다. 먼저 빛은 증인 없이 스스로 드러나며, 성경은 하나님의 위엄을 비추는 영적인 빛이라고 논증한다. 따라서 교회는 이 빛을 높이 드는 '등대'일 뿐 빛 자체가 아니다. 사람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빛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탄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양심 깊은 곳에서 일하고 세상을 정복했다. 이 효과가 성경의 신적 기원을 스스로 증거한다. 이 빛과 능력이라는 근거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코란을 믿는 믿음과 다를 바 없다는 말로 장을 맺는다.

📜 절별 정리

📜 1. 성경 안에 담긴 신적 기원과 권위의 내적 논거

오웬은 앞 장의 내용을 짧게 정리하며 시작한다. 성경은 자기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를 명시적으로 증언한다. 성경의 신성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증언에 매인다. 이제 그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드러내도록 그 안에 갖추어 둔 '내적 논거'다. 이 논거를 통해 하나님의

본다. 그의 답은 이렇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그 권위는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 양심에 스스로를 드러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손에 들어온 성경이 스스로 오류 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한다.

1. 앞 장은 성경의 '자기 증언', 이 장은 '내적 논거'
2. 질문: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가
3. 믿음의 최종 근거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
4. 그 권위는 성령으로 말씀과 함께 드러난다
5. 섭리로 전해진 성경이 스스로 증명한다

> **(직접 인용 없음)**
> 이 절은 질문과 답을 세우는 도입부다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고 복종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그 권위는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양심에 스스로를 드러낸다."

📜 2. 성경의 자증하는 효력

이 장의 주제는 성경의 '자증하는 효력'이다. 자증이란 다른 무엇의 보증 없이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지를 증명한다는 뜻이다. 오웬은 이 효력의 근거가 '공통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이성이 닿는 범위만큼 넓어서, 아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근거라는 뜻이다. 그는 미리 한 가지를 밝혀 둔다. 이 근거 가운데 일부는 성경에 담긴 내용 자체에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은 권위와 효력을 잃고, 다른 책에 적힌 같은 내용과 다를 바 없어진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라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제는 기록된 책이 그 사람들의 직분을 대신한다. 그런 다음 오웬은 스스로를

1. 자증의 근거는 믿지 않는 이에게도 닿는다
2. 내용만 떼어 보면 다른 책과 같아진다
3.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틀이 핵심이다
4. 기록이 옛 선지자·사도의 자리를 대신한다
5. 스스로 증거하는 두 가지: 빛과 능력

> **(직접 인용 없음)**
> 이 절은 논증의 틀을 놓는 부분이다

"옛날에 말하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지금은 기록이 그러하다. 그때 믿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 받아 그들이 한 말이었고, 지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 3. 모든 빛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첫 번째 원리는 빛은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빛은 자기가 드러나는 데 필요한 일을 자기 쪽에서 모두 한다. 빛을 보는 사람 쪽의 결함은 아직 다루지 않는다고 오웬은 밝혀 둔다. 그는 에베소서의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를 인용한다. 해가 떠오르면, 눈 있는 사람에게 낮이 되었음을 증명해 줄 증인은 필요 없다. 작은 촛불도 마찬가지다. 어린아이가 어두운 방에 촛불을 들고 들어왔는데, 점잖고 권위 있는 증인들을 불러 빛이 들어왔다고 증명하려 한다면 미친 짓이다. 빛은 어떤 증언보다도 더 확실하게 스스로를 증명한다. 자연의 빛이든 도덕적인 빛이든 빛이라면 그렇다.

1. 빛은 자기 쪽에서 드러날 일을 다 한다
2. 보는 사람의 결함은 따로 다룬다
3. 해와 촛불은 증인이 필요 없다
4. 빛의 증명은 어떤 증언보다 확실하다

>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는 원리 자체를 성경에서 가져온다
>
>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은 자신을 증명할 증거도 증언도 필요 없다.” /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빛이 아니다.”

📜 4. 성경은 빛이다

성경을 빛이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드러나는 빛의 성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오웬은 주장한다. 그는 먼저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은 본질상 빛이시다. 그분이 거하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은 반짝이는 물질적 광채가 아니다. 우리 지성이 다가갈 수 없는 그분 존재의 영광스러운 위엄이다. 어떤 것이 빛의 원천인 하나님의 본성에 많이 참여할수록 더 참된 빛이다. 그래서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지성적인 빛이 으뜸이다. 성경이 바로 그런 빛이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광명을 배반하는 자”라고 부른다. 그들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권위에 맞서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며, 해의 빛에 견주어지고 해보다 낫다고 일컬어진다. 이어서 오웬은 교회의 역할을 정한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 빛을 높이 들어 더 잘 보이게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교회 의무의 거의 전부다. 다만 교회는 이 일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지 '권위로' 하지 않는다. 교회는 빛을 들 뿐 빛이 아니며, 빛을 증언할 뿐 빛 한 줄기도 새로 켜지 못한다. 설교와 성례와 진리 안에서의 삶이 모두 이 빛을 드는 일이다.

1. 빛이라 불리려면 스스로 드러나야 한다
2. 하나님은 본질상 빛, 모든 빛의 원천
3. 성경은 하나님의 위엄을 비추는 영적 빛
4. 교회는 빛을 드는 기둥이지 빛이 아니다

"참빛이 비친다"는 표현이다(오웬은 장절을 달지 않음). 참된 빛은 비친다는 점을 보인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일서 1:5

하나님은 빛이시다. 모든 빛의 원천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16

하나님이 거하시는 빛은 물질적 광채가 아니라 다가갈 수 없는 위엄이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사야 57:15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신다. 디모데전서 6:16의 '거함'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게 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시편 104:2

하나님이 빛을 옷처럼 입으신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다니엘 2:22

빛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빛의 샘이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욥기 24:13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광명을 배반하는 자”다. 알면서도 거스르는 것이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시편 19:8, 시편 43:3, 시편 119:105, 시편 119:130

말씀은 눈을 밝히는 빛이요 등불이다

시편 19: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43:3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30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잠언 6:23

계명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사야 9:2, 마태복음 4:16

어둠 속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친다

이사야 9: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복음 4:16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호세아 6:5

하나님의 심판(말씀)이 빛처럼 나온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마태복음 5:14

빛은 숨겨질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요한복음 3:20-21

사람은 빛을 미워하거나 빛으로 나아온다. 빛 앞에서 반응이 갈린다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베드로후서 1:19

성경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저자의 위엄으로 빛나 스스로 드러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시편 19:5-8, 로마서 10:18

말씀을 해에 견주고 해보다 높인다

시편 19:5-8 5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로마서 10: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디모데전서 3:15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빛을 높이 드는 역할일 뿐 빛을 만들지 않는다

>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 “교회는 빛을 높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빛은 아니다. 교회는 빛을 증언하지만, 그 빛이 드러나도록 신적 광선 한 줄기도 켜지 못한다.”

📜 5. 영적인 빛도 스스로를 증거한다

반론이 예상된다. 성경은 자연의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니 스스로 드러난다는 말이 약해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오웬은 오히려 이 원리가 영적인 빛에 더 잘 들어맞는다고 답한다. 빛은 본래 눈의 결함을 고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빛은 눈이 아니다. 빛 쪽에서 드러나는 데 모자란 것이 없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시각장애인이 해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해가 해임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오웬은 또 하나를 분명히 한다.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읽는 사람 모두가 즉시 그 신적 기원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눈을 혹사해 빛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강한 전통에서 받은 원리와 수많은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다. 빛을 미워하게 만드는 부패한 욕망도 있다. 바울의 말대로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빛이 모자라서도, 증언이 모자라서도 아니다. 이 세상의 신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1. 영적 빛에 이 원리가 더 잘 맞는다
2. 빛은 눈이 아니다, 눈을 고치지 않는다
3. 문 보는 것은 빛이 아니 눈의 문제

5. 선입견·전통·욕망·사탄이 눈을 가린다

> **요한복음 1:5**
>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못 보는 것이 빛의 효력을 깎지 못함을 보인다
>
>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 **고린도후서 4:2-4**
> 진리를 나타냄이 모든 양심에 호소하지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불신의 원인을 짚는다
>
> 2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빛은 눈이 아니다.” / "그 진리 자체에 빛이 모자라서인가? 아니다. 이 빛을 주장할 증언이 모자라서인가? 아니다. 다만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 6. 앞의 전제에서 나오는 귀결

오웬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두 가지를 끌어낸다. 첫째, 성경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권위이며, 신적 믿음은 오직 그 권위 위에 선다. 둘째, 말씀은 어떤 경로로 전해지든 그 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낼 만큼 충분한 빛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 이 세상의 신에게 눈멀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는 결국 그 빛이 드러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사탄이 그들 자신의 욕심과 부패와 선입견과 완고함을 이용해 그들을

무신론과 불신에 대해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말씀이 아이의 손을 거쳐 오든 교회의 손을 거쳐 오든, 우연이든 전통이든 상관없다.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서 나오고, 그것을 드러내는 힘은 말씀 안의 빛에서 나온다.

1.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권위
2. 말씀은 스스로 드러낼 충분한 빛이 있다
3. 불신의 원인은 사탄과 마음의 완고함
4. 사람의 증언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5. 누구 손으로 오든 권위는 말씀 자체에 있다

> **고린도후서 4:4**
> 앞 절에 이어 '이 세상의 신'이 불신의 원인임을 다시 쓴다
>
>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 **요한일서 5:9**
>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는 말이 이 구절에서 온다(오웬은 장절을 달지 않음). 사람의 증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근거다
>
>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언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증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증언이 더 크기 때문이다.” / “아이의 손이든 교회의 손이든, 우연이든 전통이든, 성경이 어떻게 오든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서 나온다.”

그렇다면 오웬이 말하는 성경의 빛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진리와 거룩과 권위가 비치는 광채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에 주시고 남겨 두신 것이다. 하나님의 탁월함이 찍힌 자국이어서, 오류 없는 표지로 성경을 어떤 피조물의 작품과도 구별해 준다. 이 빛으로 성경은 사람의 양심과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파고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위엄과 권위로 그 안에서 인도하고 가르치고 결정하고 심판한다. 눈먼 사람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해 부정한다 해도,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해가 없다. 이 빛으로 성경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걸고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증명하는가? 오웬은 하나만 전제한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책이 그 사람에게 전해져 그가 읽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말씀에 맡긴다. 말씀이 그의 양심에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눈멀었기 때문이다. 그 눈멂은 마지막 날 핑계가 되지 못한다.

1. 빛 = 하나님의 위엄·진리·거룩·권위의 광채
2. 성령께서 성경에 찍어 두신 하나님의 자국
3. 피조물의 작품과 구별되는 오류 없는 표지
4. 양심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 권위로 심판한다
5. 증명법: 책을 건네고 말씀에 맡긴다

> **(직접 인용 없음)**
> 앞 절들의 구절(특히 고린도후서 4:4)을 바탕으로 빛의 정체를 정의한다

> “이 빛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진리와 거룩과 권위가 비치는 광채다.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에 주시고 남겨 두신 것이다.” / “이 근거로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는 다른 어떤 근거로도 결코 받지 않을 것이다.”

📜 8. 능력도 스스로를 증거한다

스스로를 증거하는 두 번째 것은 실제로 힘 있게 작용하는 것들이다. 불은 열로, 바람은 소리와 힘으로, 소금은 맛으로, 해는 빛과 열로 자신을 증명한다. 도덕적 원리도 그렇다.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의 일을 마음에 새긴 것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원리가 그들의 행동과 효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그 안에 타고난 힘이 있어 알맞은 대상에 실제로 작용하면, 그것은 자기 본성을 스스로 증거한다. 오웬은 성경이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큰 능력과 그 효과로 알려지시는 하나님 자신 다음으로 으뜸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주제를 다 펼치면 길어지므로 한두 가지만 짚겠다고 밝힌다.

1. 불·바람·소금·해는 작용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2. 도덕 원리도 행동으로 드러난다
3.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스스로 증거한다
4. 성경은 하나님 다음으로 으뜸가는 능력이다

> **로마서 2:14-15**
> 마음에 새긴 율법이 행위로 나타난다. 내적 원리가 작용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예다
>
>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어떤 것이든 그 안에 타고난 힘이 있어 알맞은 대상에 실제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본성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다.”

📜 9.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능력 있다

오웬은 두 단계로 논증한다. 먼저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린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오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온다. 말씀은 “권능의 규”라고도 불리는데, 권위와 효력을 함께 뜻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위인 것이 자기가 그러함을 스스로 알리지 못할 리 없다. 다음으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도 “능력 있다”. 성경은 디모데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룩한 글이다.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이며, 성도를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다. 그 능력은 살아 있고 활력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 예리하게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1.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2. 말씀 위의 믿음은 하나님 능력에 선다
3.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곧 증명이다
4. 우리를 향해서도 구원할 능력이 있다
5. 마음의 생각까지 찌르는 살아 있는 말씀

> **로마서 1:16**
>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의 목적이 구원임을 보인다
>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 **고린도전서 1:18**
>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
>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 **고린도전서 2:4-5**
>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선다(오웬은 2:5를 달고 2:4의 말을 인용)
>
>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온다. 능력이 확신을 준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시편 110:2

“권능의 규”는 말씀의 권위와 효력을 함께 가리킨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디모데후서 3:15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오웬은 장절을 달지 않음). 우리를 향한 능력이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1:21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도행전 20:32

바울이 성도를 '능히 세울 수 있는' 말씀에 부탁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4:12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 능력이 어떤 종류인지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3:7

"그의 능력이 역사하심"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온다(오웬은 장절을 달지 않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요한복음 6:68-69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말씀이 붙드는 힘을 보인다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린도전서 6:14, 고린도전서 15:57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과 승리로 일한다. 같은 능력이 말씀으로 일한다

고린도전서 6:14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5: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갈라디아서 2:8

하나님이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 역사하신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위인 것은 분명 자신이 그러함을 스스로 알릴 수 있다."

📜 10. 이 능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말씀의 능력은 먼저 역사 속에서 드러났다. 말씀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었다. 칼도 없이, 대개는 기적도 없이, 사람의 지혜나 웅변도 없이 그렇게 했다. 그 동기는 오직 말씀 자신에게서 나왔고, 그 내용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이었다. 그런데도 말씀은 세상을 정복했다. 모든 시대, 모든 곳의 온갖 사람이 그 권위 앞에 엎드렸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곧바로 버렸고, 본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을 견뎠다. 오웬은 능력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들은 이미 많은 사람이 다루었으므로 길게 쓰지 않겠다고 말한다. 다만 이 효과들에는 큰 이점이 있다고 짚는다. 모두 영적이고,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자리 잡는다. 그래서 꾸며 낸 것이라고 반박당할 수 없다. 파라오가 마술사를 불러 흉내 내게 했듯이 맞설 수도 없고, 흔한 일이라고 둘러댈 수도 없다. 그 효과가 머무는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어떤 힘도 닿지 못하도록 지켜진다. 그 효과는 이런 것들이다.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고, 사람을 그 속에서 심판하며, 깨닫게 하고, 두렵게 하고, 굴복시키고, 죽인다. 회심하게 하고, 세우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순종하게 한다. 어떤 처지에서든 위로를 준다.

1. 칼·기적·웅변 없이 세상을 정복했다
2. 성도들은 소중한 것을 버리고 고난을 견뎠다
3. 능력의 자리는 마음과 양심이다
4. 마음속 효과는 흉내 내거나 꾸밀 수 없다
5. 찌르고 죽이고 살리고 세우고 위로한다

> **골로새서 1:6**
>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다. 말씀 능력의 역사적 증거다
>
>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 **고린도전서 2:9**
>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이다. 사람의 기대와 동기에서 나온 내용이 아님을

>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7:11

파라오의 마술사 이야기다(오웬은 장절 없이 빗대어 씀). 마음속 효과는 흉내 낼 수 없음을 보인다

>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칼 없이, 대개는 기적도 없이, 사람의 지혜나 웅변 없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동기만으로 이 말씀은 세상을 정복했다." / "이 효과들이 머무는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말고는 어떤 힘에도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켜진다."

📜 11. 질문 전체의 해결

오웬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아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의 답은 이렇다. 성경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증언한다. 그 증언은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에 속고 있지 않다는 오류 없는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성경에 따라오는 빛과 능력의 영광에서 온다. 이 빛과 능력이 확실한 표지로 성경을 신적이지 않은 모든 글과 구별한다. 그리고 그 진리와 능력을 오류 없는 확실성으로 사람의 영혼과 양심에 전한다. 진짜로 구별되는 믿음의 근거를 가진 사람은 모두 이 근거로 성경을 받는다. 이 근거와 떨어진 믿음은 코란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똑같이 통할 방편에 불과하다.

3. 빛과 능력이 성경을 다른 글과 구별한다
4. 확신은 양심에 주어지는 오류 없는 확실성
5. 이 근거가 없으면 코란 믿음과 다를 바 없다

> **요한일서 5:10**
>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오웬은 장절을 달지 않음)
>
>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 **베드로후서 1:16**
>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오웬은 장절을 달지 않음). 확신이 속임이 아님을 보인다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성경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증언한다. 그 증언은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다.” / “이 근거들과 떨어진 믿음은, 코란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똑같이 통할 방편에 불과할 것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신적 기원
성경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뜻이다.

다른 누구의 보증 없이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지를 증명한다는 뜻이다. 오웬은 성경이 빛과 능력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한다고 본다.

내적 논거
성경 바깥이 아니라 성경 안에 본래 갖추어진, 신적 기원의 증거들을 말한다.

형식적 근거(형식적 대상)
믿음이 최종적으로 기대어 서는 이유를 말한다. 오웬에게 그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다.

섭리
하나님께서 세상일을 다스리시는 손길을 말한다. 성경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읽히는 것도 섭리의 일이다.

사역적으로/권위적으로
교회가 말씀을 '섬기며 전하는' 것과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의 차이다. 오웬은 교회에 앞의 것만 인정한다.

확실한 표지(헬라어 테크메리아)
틀림없이 무언가를 알아보게 하는 증거를 말한다. 성경에 찍힌 하나님의 탁월함이 그런 표지다.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4의 표현으로, 사람의 마음을 눈멀게 하는 사탄을 가리킨다.

소키누스파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반(反)삼위일체 운동이다. 존 비들은 영국에서 그 대표 인물로 알려져 있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 청년의 삶으로 ⌄

← O03 | PDF | O05 →

✅ 이 장의 결론

- 성경을 믿는 최종 근거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다. 그 권위는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우리 양심에 드러난다.
-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은 빛과 능력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엄을 비추는 빛이자, 양심을 찌르고 세상을 정복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 교회는 이 빛을 높이 들 의무가 있지만 빛에 권위를 더하지는 못한다.
-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빛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탄이 마음을 눈멀게 했기 때문이다. 그 눈멂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
- 이 빛과 능력이라는 근거 없이 선 믿음은 다른 종교의 믿음과 구별되지 않는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8편 ·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셨나 · '성경이 이르시되'
- 성경론 12편 · 성경은 스스로 빛을 낸다 · 자증성
- 성경론 17편 · 누구나 읽고 알 수 있나 · 필요성과 명료성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